

“나라를 나라답게...국민 모두의 대통령”

문재인 19대 대통령 공식 취임

軍통수권 인수 ... “안보위기 해결...정경유착 없애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제19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취임선서를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선서에 이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고 때로는 광화문 광

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말해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일 자리를 챙기고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 서겠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9분을 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9대 대선 개표결과 당선인 의결에 따라 군(軍)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법적 권한을 넘겨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홍은동 자택에서 이순진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전방의 경계태세를 점검했다. 이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 국회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야 4당 지도부와 차례로 면담하고 국정동반자로서 국정운영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2시30분에는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첫 인사를 발표하고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경제부총리에게 당면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령 취임 선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대선 최종 득표율

문재인 41.1%

홍준표 24.0%

안철수 21.4%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 종료 결과, 총 3267만 210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342만 3800표로 전체의 41.08%를 득표했다. <관련기사 5면>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785만 2849표(24.0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699만 8342표(21.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220만 8771표(6.76%), 정의당 심상정 후보 201만 7458표(6.17%)로 집계됐다.

문 당선인의 총 득표수와 2위 홍준표 후보와 차이는 557만 951표(17.1%)다. 이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최다표차다.

군소후보 중에는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4만 2949표(0.31%), 무소속 김민찬 후보 3만 3990표(0.10%), 민중연합당 김성동 후보 2만 7229표(0.08%), 국민통합당 장성민 후보 2만 1709표(0.06%), 한국국민당 이정희 후보 1만 1355표(0.03%), 뉴루한국당 이재오 후보 9140표(0.02%),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 640표(0.01%) 등의 순으로 득표했다. 무효투표수는 13만 5733표. 기권수는 96만 1802표로 각각 집계됐다.

문 후보의 지역별 득표율을 보면 ▲전북이 64.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광주(61.14%), ▲전남(59.87%)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42.34%를 득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 중용 ... 국무총리 이낙연 전남지사 지명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임명

국정원장 서훈·경호실장 주영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65) 전남지사를 지명했다. <관련기사 3면>

또 국가정보원장(장관급) 후보자에는 서훈(63) 전 국정원3차장을 지명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장관급)에는 임종석(51) 전 의원, 대통령 경호실장(장관급)에는 주영훈(61)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첫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이 총리 후보자는 호남, 서 국정원장 후보자는 서울, 임 실장은 호남, 주 실장은 충남 출신으로 10여년 동안 인사 소외에 시달려온 호남을 배려하면서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로 지명과 관련,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인사에서도 호남 인사를 중용할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 내각이 조속히 안착 되고 국정원 개혁과 남북관계 안정화를 신속히 이룰 수 있도록 국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인준하고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청문 절차를 거쳐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후보자는 12일께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초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아닌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전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격 내정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대통령 친인척 및 공직기강 관리와 인사 검증 작업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에 비(非)검사 출신 인사가 기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인사수석에는 여성인 조현옥(61)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교수는 부산 출신, 조현옥 교수는 서울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애초 민정수석 및 인사수석 인선 결과를 이날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7 PINK RUN

핑크런 광주대회

핑크리본사랑마라톤에서 핑크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5.14.(일요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
기념품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런 사무국 (1688-9744)
참가신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www.pinkcampaign.com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사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MBC, KBC광주방송, KBS광주방송총국

A MORE BEAUTIFUL WORLD / AMCF 20 by 20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